

부산성모병원 완화의료센터

부산시 남구 용호동 538-41

대표전화 : 051-9337-114, 호스피스센터 : 051-933-7100

부산성모병원의 호스피스는 '치유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재현하며,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여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 있는 임종을 도모하고 여생을 충만하게 살도록 사랑으로 돌보는' 가톨릭의료기관의 설립 이념과 호스피스의 철학을 접목시킨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의 이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병원의 근본정신인 '섬김 사랑'을 기본으로 한 '생명존중, 사랑, 감사, 나눔'을 실천하는 원칙으로 호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본원의 호스피스는 1996년 성분도병원에서 자원봉사자 기본교육과 함께 수녀님과 자원봉사자의 지도로 시작된 산재형 호스피스로 출발하였다. 2005년 5월 호스피스 병실형으로 내과 병동의 한부분에 3인실 1개, 4인실 1개, 1인실을 임종실로 두고 말기

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활동을 이어 갔다.

2006년 6월 현재의 자리에 부산성모병원으로 신축이전을 했고 2007년 4월 16일 10층에 호스피스병동을 열었으나 재할병동과 겸임을 하였으므로 독립된 공간은 아니었지만 전담 코디네이터를 두어 호스피스 팀 회의, 사별가족 모임, 보건소 연계로 지역사회와의 협약 체결을 하여 호스피스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2008년 12월 9병상으로 호스피스 병동이 독립되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1차 말기암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인정되었으며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는 최초의 '말기암 완화의료 전문 기관'이 된 것이다. 이때부터 매월 전체 직원에게 호스피스 인식확산 교육을 시켰고, 성당, 노인대학, 복지관 등 일반인에게도

기회가 되는 대로 호스피스가 무엇인지 이해를 돕기 위한 호스피스 인식교육을 하였다.

2009년 4월 호스피스병상이 13병상으로 증설되었으며 호스피스만을 위한 상근 사회복지사를 전담으로 두어 말기암환자에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심리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2009년 10월~12월 호스피스 병동을 완화의료 전문기관의 규정에 맞게 리모델



링하였으며 쾌적한 환경과 깨끗한 시설로 전국의 많은 호스피스 팀들이 본원을 방문하고 있으며 특히 임종실은 크기, 구조, 위치 등을 차별화 하여 환자와 가족들이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2009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기관’으로 지정받아 시범사업을 통해 건강보험수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표준수가의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암관리사업에 참여하였으며(1차 2009.12~2011.5) 2011년 9월부터 실시하는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2010년 1월 호스피스 병동에서 완화의료센터로 승격되었으며 임종실을 제외한 20병상이 되었고 ‘2차 말기암 완화의료 전문 기관’으로 지정받아 명실공히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부산가톨릭대학교와 고신대학교의 호스피스전문 간호사 과정,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 부산 지역 표준 60시간 교육생을 위한 완화의료 실습지로 제공되고 있다.

2010년 10월 호스피스 홍보 캠페인 주관을 맞이하여 ‘호스피스 사진전’을 개최하여 병상에서 투병하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전시함으로써 주위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고 또한 진한 감동을 주기도 하였다. 현재 ‘3차 말기암 완화의료 전문 기관’으로 인정되어 다양한 활동으로 말기암환자들과 함께 하고 있으며

2011년 7월 8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학회 부·울·경 지회의 주관으로 실시하는 제 31차 증례발표를 통하여 주위에 호스피스와 호스피스 팀원의 역할을 홍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본원 완화의료센터에서 실시하는 호스피스의 구체적인 활동을 보면 호스피스 환자 24시간 간호 및 통증 조절, 호스피스 환자와 가족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호스피스 환자와 가족 위한 상담 및 영적 관리, 사별 가족 돌봄,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 관리

및 교육, 직원 및 일반인 호스피스 교육이 포함된다.

지난 한 해 동안 이경식 박사님을 모시고 전원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여 호스피스 정신을 일깨웠고 간호부의 협조로 대한간호협회에서 인정하는 ‘호스피스 간호’ 보수교육을 개발하였으며 사이버 교육업체인 하이런닝과 협약하여 호스피스 사이버 교육을 개발하였으며, 웃음치료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환자, 보호자, 직원 및 지역사회의 많은 분들을 모시고 웃음에 관한 강의를 들었으며, 이혜인 수녀님을 모시고 ‘희망은 깨어 있네’란 제목으로 암 투병을 하신 수녀님의 투병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병상에서 힘들게 투병하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했다.

매주 또는 매월 1~4회 원예, 미술, 음악, 무용, 명상, 요가 등 전문 치료 봉사자들로 구성된 각종 요법들이 무의미하기 쉬운 환자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고 있다. 이외도 생일잔치, 상견례 주선, 결혼 30주년 기념, 환갑잔치, 결혼기념일 등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여 생의 마지막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고 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수도자, 봉사자로 구성된 팀원은 매주 금요일 팀 회의를 실시하며 환자의 질병 진행상태, 치료방향, 문제점, 환자와 가족의 간 호요구, 가족관계 및 지지 정도, 환자와 가족의 심리 상태, 적응상태, 영적 상태, 기타 각종 호스피스 교육, 행사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호스피스를 함께 의논하며 운영하고 있다.

